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화두 '인수합병'



송 승 훈
하이셀 대표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흥미로운 보고서를 제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글로벌기업의 M&A 동향과 전략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서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라 경고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세계 M&A가 2003년 중반 이후 '6차 물결'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2004년 전세계 M&A규모는 2002년보다 71% 늘었으며 미국의 M&A금액은 2002년 5170억 달러에서 2004년 1조100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M&A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6차 M&A' 물결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기존의 '게임 룰'인 내실경영을 통한 자력 성장만 고집하면 국제적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직전에 해외기업 인수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아직 국제적인 M&A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국제적 선도기업들은 제품의 가격과 질로 승부를 걸었던 상품시장의 경쟁에서 벗어나 'M&A'를 통한 경영요소시장의 장악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 기업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내 기업들도 'M&A'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국내 기업인들은 기업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내 자식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는 인식이 강해 'M&A' 시장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체질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도

한국의 벤처들이 성공을 하면 반드시 해외 메이저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돼 있다. 다국적 기업인 그들이 일취월장하는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리 없지 않은가. 제 아무리 경쟁력을 가진 벤처라도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태되기 십상이다. 기업이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법에는 내실경영을 하는 것과 인수합병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내실경영을 택하는 편이 우선이다.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인수합병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셀은 좀 특이한 회사이다. 하이셀은 휴대폰용 BLU를 비롯해 정밀 금형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엔투에이와 작년 10월 합병해 탄생했다. 최근 BTB Connector업체인 마루스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요즘 IT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은 채 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따라서 기업이 영위하던 품목이 생명을 다 하면 회사는 운명을 달리하기 마련이다.

하이셀은 이러한 라이프사이클에 끌려가지 않고 '장수 기업'으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초정밀가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꾸준한 사업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벤처영광 길어야 3~4년' 이란 말이 회자된다.

이 말은 벤처인들을 슬프게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무수한 벤처들이 그 정도의 영광을 누린 후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므로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다. 벤처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업체들 대부분은 인수합병에 인색했다. 내실경영을 우위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 또한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벤처들이 성공을 하면 반드시 해외 메이저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돼 있다. 다국적 기업인 그들이 일취월장하는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리 없지 않은가. 제 아무리 경쟁력을 가진 벤처라도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시기가 오면, 벤처들은 새로운 사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기술개발을 통한, 인수합병을 하든 말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 대부분은 그 시기에 기술개발에 매진한다. 인수합병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국내기업이라도 내수 시장에서만 경쟁할 수는 없게 됐다. 시장구조가 그렇게 변했다. 글로벌 경쟁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단 말이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M&A는 필수적인 경영요소가 됐으며 M&A를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기업들은 중국·러시아·인도 등 신흥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경영요소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M&A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이 말을 한국 기업들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K**